대동제도 개인주의 세태반영

학생회의 준비와 주인의식 요청

93 봄맞이 대동제를 바라보면서 젊은 청춘의 생기 발랄하고 활달함을 마음껏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대동제의 본의미를 다수의 학우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대동제란 우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이 모두 크게 단결하여 하나가 되는 장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학우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전까지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사치, 향락적인 외국식 문화로 이어져온 축제가 아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만끽하면서 공동체적이고 통일적인 대학인의 열기로 가득차는 젊의 대동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동제를 보노라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갈수록 대학내에 침투해 들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상업성을 띠고 있었고, 분위기를 위해 흘러나오는 음악의 대부분이 찢어지는 듯한 곡이었고, 주점의 경우에도 주점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미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또한 많은 수의 학우들이 수업이 끝나면 행사에 참여하기 보다는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공동체로 어우러져야 할 대학내에 여전히 개인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이 끝나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괜한 시간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행사를 주인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이번 대동제가 좀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동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희학우들이 대동제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 학원에 대한 자부심 또는 주인의식이 뒤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행사를 준비하는 각 학생회나 동아리에서는 그 행사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올바른 목적을 가지면서 좀더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93년 봄맞이 대동제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부족했던 점과 잘못된 점을 느끼면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좀더 나은 대동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싶은 점들을 부족하게나마 적어 보았다.

임 차 진 〈사회대·회계4〉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하이텔(ID);jang 3 천리안(ID);choarha

'광주문제는 특검제 실시로'

살아있는 오월 느낀 광주순례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아직도 광주의 오월 하늘은 검붉기만 하다. 특검제 실시, 책임자 처벌,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은 사실을 묻어두고 '역사가 말해준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광주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 검사제의 도입이며, 광주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기존의 정권들은 5·18 민주항쟁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갖은 권모술수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또한 돈 몇푼으로 피해자를 회유하여 항쟁의 정신을 희석시키려 하였다.

지금 광주 문제의 진짜 주범인 여러 정치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죄도 잊은 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들을 단호히 배척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월동 묘지에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어린 12살 짜리 소년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는 슬픔만이 내 앞을 맴돌았다.

그러나 피빛 광주의 오월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 조선대에서의 도청앞 전군과정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 주었던 광주의 시민들, 도청앞 분수대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의 모습속에서 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 고향은 제주도이다. 제주도에도 4·3 이란 커다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광주에서처럼 4·3의 문제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건만 지금도 그 실마리를 잡지 못한채 허송의 50년 세월을 보내야 한 꺼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진상을 알 수 없는 50년 세월이 한탄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어제는 아니다. 빛고을 광주에서처럼 새로이 살아난 수 있는 4·3의 진상규명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과거의 높으드 인해 현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의 문제는 광주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4천만 민중이 모두 느껴야할 문제인 것이다.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는 물러가라!!!"

"특검제를 실시하여 광주문제 해결하자!!!"

김 용 걸 〈전자공·1〉

도서관 자리독점 '이기심'이 원인

1인1좌석제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필요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도서관에 갔다가 실망한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리독점'때문이다. 요즘은 자리잡는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주인이 공부하다 잠깐 나간것 처럼 책을 산만하게 흩어놓고 펜도 뚜껑을 연채로 흩어놓는다. 또 어떤 학우는 공부하다가 집에 돕아갈때 일부러 책을 펴놓고 가서 다음날 아침에 그책을 옆으로 밀어놓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새벽에 잡은 자리라며 자리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친한 친구에게 자릴 잡아달라고 하는것도 있다. 모두의 경우이겠지만,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왔을때 자리가 주인없는 책들로 채워져 있으면 기분이 매우 상한다.

또한 시험기간같은 경우에는 더욱 기분이 상하고 화까지 난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모습이 나와 내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만 낼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걸 알았다. 그이유는 우선 도서관의 좌석수 부족이다.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석수 부족이 자리독점을 정당화 시켜줄 순 없다. 모든 학우에게 조건이 같기 때문이다. 결국, 그 주된 이유는 우리 경희대 학우들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니까 자리를 독점해 보려는 그 생각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집이 멀거나 좋지않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만 생각할뿐 자신보다 좋지못한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서로의 이기심을 버리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신의 욕계를 대가정에 자기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그속에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곧 축제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인복위에서 '1인1좌석료'다 뭐다 해서 많은 노력을 보였지만 큰 성효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한 노력도 '이기주의'가 없어지지 않는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서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도서관에서 시험기간동안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때가 꼭 오리라 믿는다.

김 희 갑 〈법학·2〉

'젊은 사자들' 하이텔 경희모임

서울·수원 함께 동호회 준비중

우리 '젊은 사자들(가칭)'은 하이텔(HITEL)내의 경희인들의 모임이다.

현재 하이텔에 ID를 가지고 있는 서울·수원 양 캠퍼스의 학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백여명 정도가 된다.

지난 1월초, 하이텔에 경희인의 모임이 없음을 아쉬워한 강 욱(경영 88), 이승우(경영 92) 두 명이 하이텔의 게시판과 채팅실을 이용하여 경희인 모으기를 시작하여 1월29일 그 첫 모임을 가져서 현재의 임원을 선출하고, 서울 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연대감을 각종 모임을 통해 고취시켜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 5월로 예정된 하이텔 안에서의 동호회 설립을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호회가 설립이 되면 좀 더 확실한 기반으로 경희 여러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이텔 안에 하나의 게시판을 얻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뿌리 동호회(PBRI)의 자유 게시판에 '젊은 사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이 우리들의 보금자리이다.

재학생 이외에도 졸업생들과의 연계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동호회 설립 이후 교직원, 교수님들과의 연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모든 회원들이 통신과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우이므로 항상 정이 넘치며 많은 정보교환이라는 면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본교에 다니는 하이텔 통신인은 함께 했으면 한다.

이 승 우 〈경영·2〉

독자조대석

이병하 〈미교·3〉

알림터

교수동정

조창한 교수 방일

【서울캠퍼스】▲김국기(의대·의학)교수=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해외연수차 미국 방문 ▲정덕환(의대·의학)부교수=오늘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학회참석차 스위스 방문 ▲배종우(의대·의학)부교수=오늘 24일부터 30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방문 ▲이충현(의대·의학과)조수=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해외연수차 미국 방문 ▲심우영(의대·의학)조교수=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 방문 ▲김광철(치대·치의)부교수=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학회참석차 영국방문

【수원캠퍼스】▲조창한(공대·건축)교수=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고속전철 역사시설 자문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윤종남(공대·산공)교수=6월25일부터 7월20일까지 연구자료 수집차 미국 방문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정용(정경대·경제) 학생회관 1층 로비 ▲권종율(부익·87) ▲이미선(경제·92) ◇학생증=▲박은영(영문·3) ▲황운기(경영·3) ▲최정아(의상·3) ▲김경은(무용·1) ▲이소현(식영·88)

【수원캠퍼스】◇지갑=▲양윤정(불문·3) 체육대 1층 화장실에서 검은색 가죽지갑 ▲김현수(불문·3) 외대 1층 화장실에서 황토색 긴 가죽지갑 ◇가방=▲김화경(경영·1) 진한 초록색 가방 ▲서의홍(건축·1)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심우성(철학·1) ▲김정미(국문·4) ▲김선중(국문·2) ▲추경주(물리·1) ▲조찬린(법·3) ▲문영훈(법과) ▲최광렬(경영·3) ▲김병철(경제) ▲황영진(경제·4) ▲정인혜(회계·2) ▲김종택(경제·4 ▲최봉진(회계·4) ▲황선희(신방·2) ▲신윤선(미교·3) ▲김현정(영교·1) ▲윤경미(식영·1) ▲홍성혜(가관) ▲이현주(의상·3) ▲전정철(의예·1) ▲김건석(의예·1) ▲이경숙(한의본·2) ▲최용식(치의본·4) ▲이한주(치의본·2) ▲최용식(치의본·4)

【수원캠퍼스】▲김수정(불문·2) ▲윤정주(행정·2) ▲백인식(행정·1) ▲이용훈(경영·4) ▲김미란(국광·2) ▲김회준(수학·1) ▲이승준(환경) ▲이승재(유전·4) ▲선우석(우주·3) ▲김영미(유전·1) ▲이상원(유전·4) ▲임영국(기계·3) ▲한백점(전자·3) ▲윤석현(전자·2) ▲최효진(전자·2) ▲김대영(화공·1) ▲김운수(화공) ▲고봉수(켐축·4) ▲이지영(건축·2) ▲최문성(건축·2) ▲차승준(산공·3) ▲강영진(임학·4) ▲강준영(임학) ▲신영미(식공·3) ▲김화정(식공)

동문모임

전남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전남고 동문회=오는 29일 늦은 6시 체대앞 녹원 ▲대전고 동문회=오는 28일 늦은 8시 정문앞 ▲부산고·경남여고 동문회=오는 27일 늦은 5시 한림원

【수원캠퍼스】▲창현고=오는 27일 늦은 6시 외대돌다방 ▲창원·마산여고=오는 26일 늦은 5시30분 공대휴게실

朔風

개혁에 동참한 재야의 변신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다. 시정의 칼날로 비유되는 일련의 개혁정책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박힌 부정부패를 날날히 들춰 내면서 새로운 변화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변화중의 하나는 여전에 정부와 대립관계에 서있던 재야인사들의 신정부 참여 선언일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이재오씨 등을 필두로 한 재야 명망가들의 정부참여는 현재적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과거 87년 당시 단일후보론을 주장하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재야의 정부참여는 문민정부의 변화된 시대상에서 그리 트집잡을 것은 안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들이 변절이 아닌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참여 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정부 참여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현재의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자당에 개혁세력을 좀더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의 권력자들이나 가두권세력으로 부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일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혁세력의 역량 강화가 없으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들은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정부에 참여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날 그들을 존경했던 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전처럼 재야가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비록 나름대로의 생각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일지라도 그러한 모습은 모양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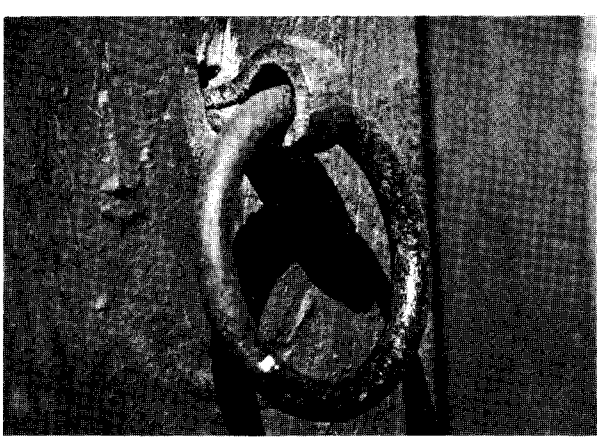
혹자는 이들의 변신을 놓고 재야의 순수성 내지는 순결성이 변질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재야 자체도 하나의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 지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재야에 의한 민주 정부가 수립된 것도 아닌데 급진적 개혁주의의 선봉에 나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노선을 달리한다는 것은 고통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재야가 쌓아온 순수성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더욱이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이런 행태들이 되풀이 된다면, 재야에서 존재해오던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커다란 잘못일 수도 있다는 우장도 있다.

여기에서 정부에 참여한 재야인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결단여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들을 따르던 눈망울들은 이젠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황망스럽기도 하다. 재야의 정치력이 다시금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충격도 한낱 지난 추억으로 남겨지겠지만 지금은 왠지 가슴이 답답하다. 사정의 칼날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지만 말이다.

〈吉〉

POSCO메세지 종강편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엽니다.

링컨,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생각을 정리했던 습관이었습니다.
또 어릴때 책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독서습관은
사르트르로 하여금 실존주의철학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미래는 풍부한 재능, 변함없는 성실성
그리고 훌륭한 습관의 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렇듯 평소에 가진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젊음의 시간 방학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평생을 함께 할 작고 훌륭한 습관을 하나쯤 만들어봅시다.
방학때 가진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도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
POSCO